

이마트 '본업 강화' 전략 통했다... 3년만에 분기 최대실적

3분기 영업이익 1117억, 43% ↑
매출 줄었지만 순익 424% ↑

가격과격·직소싱 전략 등 성과
SSG닷컴 등 자회사 수익 개선

이마트가 2024년 3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1117억원을 달성하면서 3년 만에 분기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4% 증가한 수치다.

매출은 7조50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10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9% 급증했다.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3%, 11.4% 증가한 4조6726억원, 122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합병한 에브리데이의 3분기 총매출 3699억원, 영업이익 63억원 실적이 포함된 수치다.

◆'가격-상품-공간 혁신' 본업 경쟁력 강화, 실적 상승 원동력으로 이어져

이마트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올해 들어 고객이 가장 필



스타필드 마켓 죽전 전경.

/이마트

요로 하는 상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가격과격 선언', 직소싱과 대량 매입, 제조업체와의 협업 등 이마트의 유통 노하우를 총동원해 50여 개 상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인 '가격역주행'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다.

여기에 스타필드 마켓 죽전과 같은 이마트의 공간 혁신 리뉴얼 작업이 기존 고객의 방문 증가와 함께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하며 영업 이익 증대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3% 증가한 9652억원, 영업이익은 30% 늘어난 3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개 분기 누적 영업이익 또한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871억원에 달했다.

전문점 사업 또한 노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익성 위주의 구조 개편이 성과를 내며 3개 분기 연속 1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온·오프라인 주요 자회사들 수익성 강화

SCK컴퍼니·SSG닷컴 등 온·오프라인 자회사들 역시 수익성이 개선됐다.

먼저, 스타벅스는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66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아이스 음료를 중심으로 한 매출 호조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이익률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SSG닷컴 역시 광고 수익 증가와 마케팅비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영업 손실이 307억원에서 165억원으로 142억원 감소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1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했고, 신세계푸드는 사업 구조 개편 등 경영 효율화로 전년 동기 대비 7억원 늘어난 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편의점 이마트24도 영업손실이 지난해보다 31억원 감소한 1억원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마트, 본업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 개선 이어 나간다

이마트는 향후에도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한층 고도화해 성장 모멘텀을

다지는 한편, 비용 절감과 투자 효율성 제고로 수익성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할인점 부문에서는 가격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 중심의 상품 혁신을 지속해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로서리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도입하고, 고객 중심의 공간 혁신 리뉴얼을 지속해 객수 증가와 매출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마트는 그동안 추진해 온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의 3사 통합 매입과 물류센터 재편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격 주도권 확보와 상품 혁신, 고객 중심의 리뉴얼 등 본업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의 원동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본업에 초점을 둔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尹, APEC서 한일 정상회담 "책임외교 구현" 부동산 PF 자기자본 5%→20% 확대

후반기 외교일정 시작... 페루 출국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 동행 안해 한미일 회담서는 공조 제도화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임기 후반기의 시작을 외교 일정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제31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로 향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21시간 20여분간 비행 후 같은 날 저녁(이하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 도착한다. 그리고 15일부터 이틀간 APEC 정상회의와 한-페루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7일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18일부터 제1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식 회의일정 외에도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도 한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의 당시 만난 바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페루)와 G20 정상회의(브라질)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두 번째, 이시바 총리는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두 번째 정상회의는 오는 12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APEC을 계기로 열리게 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연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은 이번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3국간 역사적인 협력을 축하하고, 우리가 만든 진전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일 3국 공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화한다는 의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뤄져 관련 대응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러 군사협력을 우려하는 중국을 향해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별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남미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이번 순방은 5박 8일의 일정"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경우 확인해서 몇몇 몇시에 귀국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회동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할 경우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회동에 대비해 지속해서 양국간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부동산 PF 자기자본 5%→20% 확대

정부, 제도개선방안 발표

자기자본비율 3년간 단계적 강화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관행 개선'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서 20%로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으로 부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PF사업은 토지에 주택·건물 등을 지을 시 발생하는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기법이다. 현재 부동산PF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규모는 약 230조원으로 약 70%가 주거시설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PF 대출사업성 평가 강화 ▲한국형 디벨로퍼(developer) 육성 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2026년 10%→2027년 15%→2028년 20%로 확대한다.

현재 PF사업을 진행할 경우 땅을 매입하는 비용은 30%, 그 땅에 주택·건물을 짓는 비용은 70%다.

지금까지 PF사업자는 토지매입비용의 3%만 있으면 나머지 토지매입비용의 27%를 브릿지대출로 충당했다. 브릿지대출은 사업자가 주택·건물을 짓기 전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땅만 다지다가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져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PF 시장의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시행사(건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는 모습.

/뉴스

설사)·시공사의 담보규모와 신용도에 의존해 대출을 공급했다.

정부는 PF사업성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평가기관을 설립한다. 금융기관은 전문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 뒤 PF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시행사가 책임준공을 못할 시 시공사가 채무인수 등을 부담하는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시공사는 전쟁·천재지변 사유를 제외하고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시공사 책임이 아닌 이유로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PF사업장의 추진현황을 볼 수 있도록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까지 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현황정보를 축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류토지의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개발시장의 경기가 활력을 띄게 되고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며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리츠를 활성화해 종합부동산회사 성장을 지원하고 우량사업에 국민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